

채 수 응

(1938 ~)

우리나라 초창기 비뇨의학의 기틀을 마련한 의학자.

약력

1938년 11월 21일 서울 출생

1951년 ~ 1957년 서울 중. 고등학교 졸업

1957년 ~ 1959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의예과 수료

1959년 ~ 196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65년 ~ 197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박사)

1963년 ~ 1964년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1964년 ~ 1968년 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레지던트

1968년 9월 ~ 1969년 4월 육군 제51 후송병원 비뇨기과 과장

1969년 5월 ~ 1970년 7월 육군 제102 후송병원 비뇨기과과장

1970년 8월 ~ 1971년 7월 국군수도통합병원 비뇨기과과장. 육군 소령 예편

1971년 8월 ~ 1975년 3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1975년 4월 ~ 1981년 2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1981년 3월 ~ 1993년 12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81년 5월 ~ 1981년 7월 New York Mount Sinai Hospital 연수

1983년 3월 ~ 1993년 12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비뇨기과 과장

1986년 3월 ~ 1993년 12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

1983년 ~ 1984년 경희대학교병원 교육부장

1984년 ~ 1985년 경희대학교병원 진료부장

1985년 ~ 1987년 경희대학교병원 수술부장

1988년 ~ 1989년 경희대학교병원 진료부장

1989년 4월 ~ 1993년 2월 경희대학교병원 제 12대, 제 13대 병원장
1994년 1월 ~ 2004년 2월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1994년 1월 ~ 1996년 12월 삼성의료원 진료부원장
1994년 1월 ~ 1999년 2월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장
1997년 3월 ~ 2004년 2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99년 3월 ~ 2001년 2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
2004년 3월 ~ 2009년 강릉동인병원 비뇨의학과장

학회 경력

1976년 ~ 1992년 대한비뇨기과학회 총무, 학술, 고시위원장
1990년 9월 ~ 1991년 8월 대한불임학회 회장
1992년 10월 ~ 1994년 3월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장
1983년 ~ 1997년 한일비뇨기과학회 조직위원
1988년 3월 ~ 1991년 2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1991년 비뇨기과 교과서 초판의 편집위원
1993년 9월 제 10차 한일비뇨기과학회 학술대회 대회장
1996년 학회총람 편찬위원장
1996년 6월 제 3차 아시아 비뇨기과학회 학술대회 대회장
1996년 6월 ~ 1998년 9월 아시아 비뇨기과학회 회장
1994년 ~ 1998년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회장
1996년 11월 ~ 1998년 11월 대한비뇨기과학회 제 50차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수상

2004년 2월 대한민국 근정포장 수여

채 수 응 교수 공적사항

작성자 : 이 규 성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교수, 대한비뇨의학회장), (연락처: 010-9933-3554)

채수응 교수는 우리나라 초창기 비뇨의학의 기틀을 마련한 의학자이다. 그는 비뇨의학에 관한 뛰어난 학술적 연구 업적을 남겼고 의학 교육자로서 미래지향적인 의학교육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의료행정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196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에 입국하여 비뇨의학의 본업을 시작하였다.

군의원 소령으로 예편 후 1971년 8월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에 부임하여 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을 세우고 이끌었다. 경희대학교병원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진료와 연구면에서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시켰으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학문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공헌하였다. 경희대학교병원의 진료부장과 수술부장을 거쳐 병원장직을 4년 동안 수행하면서 결단력 있는 추진력으로 병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회활동에도 남다른 열의를 보여 학회 초창기부터 수십년 동안 불철주야 학회의 일을 열심히 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으로 우리나라 초창기 비뇨의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이사로서 대한비뇨기과학회지의 질을 크게 높였고, 고시이사로서 수련고시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장, 대한불임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남다른 신념과 노력으로 학회 발전을 이끌었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비뇨기종양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는 해외 학술활동을 통하여 최신 의학지식을 도입하고 비뇨의학의 국제 교류를 발전시켰다. 1983년부터 한일비뇨기과학회 조직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93년 제 10차 한일비뇨기과학회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1996년부터 2년동안 아시아 비뇨기과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제 3차 아시아 비뇨기과학회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는 의료행정가로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었다. 경희의료원 설립과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 삼성의료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여 삼성의료원의 개원 및 초창기 병원 운영 기본을 정착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후 정년까지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과장,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로서 병원 발전과 후학 양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요약컨대, 채수응 교수는 우리나라 초창기 비뇨의학의 기틀을 세우고 발전시켰다. 일생을 비뇨의학 발전을 위해 몸바친 그는 교육, 연구, 진료, 행정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비뇨의학 업무와 의학교육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학생들에게는 존경받는 스승으로, 환자들에게는 자애로운 의사로, 학계에서는 유능한 학자로,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는 친근한 선배로서 존경을 받은 비뇨의학자였다.